

1920년대 만주 독립군단체와 군자금

金 周 溶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1. 머 리 말
2. '간도출병'과 독립군의 동태
3. 독립단체의 군자금 모집
4. 군자금 모집의 성격과 특징 : 맺음말을 대신하여

1. 머 리 말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그것이 정규군이든 비정규군이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정규군의 경우 국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로 자금 수급·공급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 하지만 비정규군은 그것이 일정하지 않아 정상적인 루트로 수급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듯 군자금 문제는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 어려움의 강도가 더 크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단체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군자금 모금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1920년 일제는 ‘珲春事件’을 조작하여 대규모 병력을 간도에 파견하였다. ‘間島出兵’은 독립운동의 위축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다시 독립군 병력의 이동과 재편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19년 11월 韓族會는 군사정부인 군정부를 서로군정서로 개칭하고 이청천의 지휘 아래 의용대를 안도현에 보내는 한편 홍범도 등과도 연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3·1운동의 국내외적 영향에 의해 독립운동에도 큰 흐름이 바뀔 정도였다. 일제가 ‘잠재적 저항집단’으로 인식할 정도로 간도지역의 독립운동은 치열하였으며 이는 공간적 용이성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일제의 간도 출병은 독립운동의 열기를 거세하고 자국세력을 확고하게 이식하기 위해 이루어진 만큼 그 강도는 탄압 이상이었다.

이렇듯 철저하게 탄압과 학살을 자행한 간도출병은 독립운동의 방략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무장투쟁론과 외교독립론, 교전단체론 등이 당시 국제정세와 맞물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반면에 이러한 큰 틀에 대한 논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일본투쟁에 대한 부분은 통합되지 않은 채 개별적인 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개별단체의 독립운동은 재정능력, 인력, 자금문제 등 크고 작은 산적한 현안들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 가운데 조직을 이끌고 무장투쟁을 원활하게 전개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자금이었다. 즉 군자금은 독립군의 존재 자체를 가능케 하였던 중요한 인자였다.

지금까지 군자금에 대한 연구는 단독주체로서보다는 각 단체의 활동과 성격을 규명하는데 보조적 수단으로만 다루어졌다.¹⁾ 즉 선행연구에서는 군자금 모집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군자금 모집 시스템의 변화과정 및 그 실태를 추적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1) 신재홍, 「제만 항일독립군의 편성과 맥락」(『산운사학』 5, 1991); 박환, 「1910년대 대한 인국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의 성립과 활동」(『산운사학』 7, 1993); 張錫興, 「광복단결사대의 결성과 투쟁노선」(『한국근현대사연구』 17, 2001).

본고에서는 군자금 모집과정에서 나타난 단체 내의 갈등구조와 일제와의 충돌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1920년대를 그 범위로 한정하였다. 군자금 모집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간적인 측면과 주체와 객체의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당시 군자금 모집의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군자금 모집의 절대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모집주체와 객체와의 갈등구조를 통해 독립운동과 군자금의 상관성을 일정한 패턴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간도출병과 독립군 부대의 추이에 대하여 군자금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제3장은 각 단체 가운데 大韓獨立團과 參議府의 군자금 모집유형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제4장에서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참의부의 군자금 모집 사례를 충분하게 다루지 못한 한계점도 미리 일러둔다.

2. ‘간도출병’과 독립군의 동태

1920년 10월 일제는 ‘琿春事件’을 조작하여 마적단 토벌과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대규모의 병력을 간도에 파견하였다.²⁾ 하지만 일제가 군대를 파견한 실질적인 목적은 간도지역에 대한 확고한 세력부식과 함께 항일 독립군에 대한 철저한 탄압에 있었다. 일제는 羅南에 주둔하고 있던 제19사단을 출병하여 간도에 거주하고 있던 이주한인에 대한 야만스러운 탄압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독립군은 군비의 절대적인 열세를 딛고 청산리대첩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독립군이 삼림과 계곡 등의 지형과 지세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뒤 접근해 오는 일본군을 향해 정확한

2) 혼춘사건과 간도출병은 한국독립군의 전술과 전략까지 전환시키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채영국, 「1920년 琿春事件 전후 독립군의 동향」(『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1991) 참조.

타격을 가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주한인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제는 이른바 토벌계획³⁾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독립군들은 근거지를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⁴⁾ 일제의 간도침략으로 북만으로 이동하여 군비를 정비하는 독립단과 남만으로 이동하여 항전하는 독립단이 있었다. 興業團, 光韓團은 평안도 대안인 長白, 輯安 등지에서 1922년까지 수십 차례 이상 일제와 교전하였다. 한편 密山을 거쳐 연해주로 이동한 독립군들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반추할 수 있는 쓰라린 경험을 갖게 된다. 1921년 8월 이후 북만지역에는 또다시 독립군세력이 형성되었다. 즉 金佐鎭이 이끄는 北路軍政署 병력과 具春善이 이끄는 國民會 병력, 新民團 등이 밀산·敦化·東寧縣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었다. 이들 각 독립군단은 기존의 병력을 갖추기 위하여 독립군 양성에 진력하였다. 예를 들면 大韓國民會는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독립군을 배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⁵⁾ 하지만 이들 독립군들은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정규군인 일본군과 대결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만지역에 산재하여 있던 각 독립군단은 1922년 8월 통합운동을 벌여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였다.⁶⁾ 독립군

3) 간도지방 독립군 토벌계획은 일제가 봉천군벌인 張作霖과의 회의를 통하여 골격을 세웠다. 즉 1920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조선총독부, 조선군사령관, 관동군사령부, 시베리아 파견군, 봉천총영사 등이 3회에 걸쳐 봉천회의를 개최하고 반일무장단체에 대한 탄압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8월 경성회의를 개최하여 일본과 중국의 합동토벌을 적극 추진키로 결의하여 그 계획이 완성되었다(金春善, 『庚申慘變 研究』, 『韓國史研究』 111, 142-145쪽).

4) 일제가 간도출병을 단행하면서 가장 신속하게 군대를 이동하고 독립군의 근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통신시설을 설치하여 출병군대와 식민지 조선 및 관동군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독립군의 타격에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김주용, 『일제의 간도지역 통신지배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71, 2003 참조).

5) 張錫興, 『大韓國民會研究』(『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188-189쪽.

6) 崔英國, 『경신참변 후 독립군의 재기와 항전』(『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1993) 참조.

은 戰果를 뒤로 하고 추격하는 일본군을 피해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김좌진이 이끄는 대한군정서 독립군은 密山으로 집결하기 위해 북정을 단행하였다. 여기에서 독립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다. 즉 독립군의 인적·물적 토대였던 이주한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북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한편 1920년대 중반 만주에서 민족주의 운동단체는 大韓統義府 시기부터 민정기관이 군정기관보다 우위에 선 가운데 자치의 비중을 높여 갔다. 이때 자치는 봉천군벌의 테두리 속에서 한인만의 교육진흥과 식산흥업을 이룩하려는 반공개적인 자치였다.⁷⁾ 따라서 이 시기의 독립전쟁론은 외교론을 부정하였고 상황변화에 따라 무장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무장투쟁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일상적인 자치에 큰 비중을 두었다. 하지만 독립운동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자금이었다. 모든 독립운동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다.

주지하듯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경비문제였다. 즉 군자금이다. 만주의 독립군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규군과 싸워야 하는 가장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렇다면 군자금문제가 독립단체의 존재양태와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당시 독립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군자금을 조달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몇 단체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A: 1921년 8월 흥업단원은 장백현의 유력자 朴鳳練, 申斗順 등에게 흥업단 가입을 제촉하였으며 이들에게서 군자금 명목으로 150원을 모집하였다.⁸⁾

B: 軍政署 군수과장인 蔡伍와 인사과장 鄭信, 國民會 남부지방회장 馬龍河 등 6명은 寧安縣 寧古塔에서 목단강으로 이동하면서 “太平洋會議에 즈음하여 조선독립을 선언한다”라고 이주민에게 선전하면서 군자금을 모

7) 신주백, 『1920년 전후 제만한인 민족주의자의 민족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한국사연구』 111, 2000), 198쪽.

8) 『日本外交史料館文書-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滿洲ノ部』(이하 『不逞團』) 권 30, 『對岸不逞鮮人鮮地 侵入計劃ニ關スル件』 朝憲情 제565호, 1921. 10. 15).

집하였다.⁹⁾

C: 義軍團 西地方部長인 李範模는 부하 약 100명을 이끌고 화룡현 이도구 삼림지대로 이동하였으며 군자금 3천원을 모금하였다. 또 李春官, 車道允, 李白益 등은 茂山間島 방면으로 이동하여 군자금 모집에 진력하였다.¹⁰⁾

D: 서간도 방면에서 中江鎭 하류의 대안에서 불령선인단은 요즘 군자금 모집에 열중하거나 혹은 국경수비의 상황을 정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후방의 독립단과 통일을 협의하고 이를 실행하려 한다. 이는 경비상(일본에게; 필자) 절박한 상태가 도래할 수 있다. 상류 장백현 및 북간도, 노령 방면과의 연락을 통하여 불령단 통일을 꾀하고 있고 최근 김좌진 일파는 노령 각지의 불령단 통일을 위해 남하하고 있다.¹¹⁾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만주에 산재해 있던 독립단체들은 군자금을 모집하는데 진력할 수밖에 없었다. 위의 자료는 일본외무성 파견 관리나 밀정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군자금을 모집하는 독립단체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나, 어찌되었든지 독립단체의 활동은 조직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특히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자주 국내 접경지역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다.¹²⁾ 또한 군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保民會와 같은 친일단체의 간부를 암살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¹³⁾

이처럼 1921년을 전후하여 북간도를 비롯한 만주지역에서 각 단체들이 군자금 모집에 진력하였던 것은 당시 국제정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축소를 위한 태평양회의가 개최되면서 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독립군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러시아와 만주지역에

9) 『不逞團 在滿洲ノ部』 권 30, 『間島地方不逞團ノ行動』 間警 제603호, 1921. 10. 11.
 10) 『不逞團 在滿洲ノ部』 권 30, 『間島地方不逞團ノ情況』, 間警 제602호, 1921. 10. 10.
 11) 『不逞團 在滿洲ノ部』 권 30, 『國境警備ニ關スル所見』 秘受 제12316호, 1921. 10. 25.
 12) 『不逞團 在滿洲ノ部』 권 30, 『間島地方ニ於ケル不逞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 機密 제439호, 1921. 10. 22).
 13) 『不逞團 在滿洲ノ部』 권 30, 『保民會員 暗殺』(제57호, 1921. 10. 26).

서 군자금을 모집하고자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였다.

독립군은 일본군의 침략에 따른 인적 손실 및 세력만회를 위하여 기존의 독립운동에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러한 방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며 이는 각 독립단의 존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였다. 義軍團에서는 연길과 함경도 회령을 오가면서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군정서에서는 李鴻來가 주축이 되어 태평양회의를 개최하는 틈을 타 군자금 모집에 진력하였다.¹⁴⁾

3. 독립단체의 군자금 모집

(1) 대한독립단

大韓獨立團¹⁵⁾은 의병장 출신인 朴長浩와 趙孟善, 白三奎에 의해서 1919년 3월말 柳河縣 삼원보에서 조직되었다. 무장투쟁단체의 형태를 띠고 출발하였다. 대한독립단의 조직은 총재 박장호, 부총재 백삼규, 총단장 조맹선, 군사부장 전덕원, 참모부장 조병준, 총무부장 김유성, 재무부장 강세현, 서무 김일, 고문 안병찬이며 단원은 4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은

14) 『不逞團 滿洲ノ部』 권 30, 「9月中間島地方情況ニ關スル件」(機密 제420호). 이 사료 곳곳에서는 군자금모집에 대한 일제측의 기록이 많이 나온다. 그만큼 독립단의 군자금 모집에 일제는 이를 폄하하는 논조로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15) 대한독립단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朴永錫, 「日帝下 滿洲·露領地域에서의抗日民族獨立運動에 관한 研究; 復的 民族主義系列의 脈絡과 政治理念을 中心으로」(『韓國史學』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愼篤度, 「洪範圖의 大韓獨立軍의 抗日武裝鬪爭」(『韓國學報』 43, 1986). 박환, 「大韓獨立團의 組織과 活動; 復主義系列의 獨立運動團體一事例」(『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1989). 蔡永國, 「3·1운동 이후 西間島지역 獨立軍團 研究; 大韓獨立團·大韓獨立軍備團·光復軍總營을 中心으로」(『윤병석교수화갑기념한국근대사논총』, 1990). 權大雄, 「大韓獨立團 國內支團의 組織과 活動」(『교남사학』 5, 1990).

이원체제 즉 都總裁部와 總團으로 운영되었다. 도총재부에는 도총재·부총재·자문부장·司翰長·총참모·부참모장·참모로 구성되었고, 총단은 총단장·부단장·총무부장·재무부장·사법부장·교통부장·선전부장·검찰장으로 구성되었다.

대한독립단은 남만주 및 국내에 지단을 설치하여 유기적인 조직체계를 통해 무장투쟁 및 군사금 모집활동에 전념하였다. 남만주지역에 대한 지단 설치의 먼저 공화주의계열인 한족회의 세력이 미약한 홍경현·환인현 방면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집안현·관전현 등지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는 환인현·장백현·무송현·임강현·관전현·집안현·홍경현·통화현·유하현 등 9개 현에 지단¹⁶⁾을 설치함으로써 남만주지역 가운데 일본 봉천총영사관 관할지역과 특히 압록강 대안지역을 전부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¹⁷⁾ 이는 이주민의 루트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 무대¹⁸⁾로서 중요한 지점으로 독립운동단체 활동토대의 마련을 위해 중요하

16) 지단 조직에 관여했던 중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관전지단장 윤창수, 관서총관 김중량, 관서재무 김희진, 관남총관 최형준, 흥분총관 문석관, 관동지단장 오인선, 본계호 지단장 박수양, 집북지단장 천종민, 본계호 총관 김경환, 집북총관 박창선, 집동총관 최일엽, 집서지단장 최석순, 집안환인총지단장 맹철호, 인서지단장 선우용, 인서총관 승영준, 홍서지단장 이의주이다(金承學, 『韓國獨立史』, 324쪽).

17) 박환, 『大韓獨立團의 組織과 活動』(『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1989), 190쪽.

18) 19세기 후반에 한인의 유입이 증가하기까지 압록강 대안 일대는 무인지대로서 압록강의 항행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었다. 그런데 한인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단위가 설치되면서 압록강 항행도 자유롭게 되었고 상업 중심지도 발흥하였다. 이러한 도시로서는 압록강 유역에서는 집안, 임강, 장백, 지류의 혼강 유역에서는 환인, 통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도시에서는 상업활동이 행해지게 되었고, 압록강 유역의 시장은 소시장의 분립상태에 있었으며, 반드시 상업거래가 활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압록강의 하구 근처에 위치한 안동에 있어서 압록강의 수운에 의해 반출된 곡물 및 목재는 중요하며 안동에서 출하되는 곡물(주로 대두)의 80%는 압록강 유역으로 모집된 것이었다. 또 목재는 압록강 유역의 주요 산물이며, 안동 경유는 압록강 목재의 시세, 벌채량에 좌우되는 경우도 많았다. 압록강 유역은 안동의 상권에 속할 때가 많았지만 임강보다 상류가 되자 안동에서의 수운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육로에 의해 봉천과의 거래도 행해졌다. 압록강 최상류의 시읍 장백은 식민지 조선의 해산진과의 거래가 활발하였다(塚瀨進, 『中國近代東北經濟史研究』, 東方書店, 1993, 211-212쪽).

였다. 국내에도 지단을 설치하여 국내외의 연결고리를 완성하려 했던 독립 단체는 먼저 서울에 전국의 중앙기관을 두고 각 도에는 총지단, 각 군과 각면에는 군과 면의 지단을 설치하고자 하였다.¹⁹⁾ 다만 황해도와 평안도지역에 지단을 설치하는데 성공하였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대한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북벽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²⁰⁾ 특히 이 단체는 부호의 집을 대상으로 군자금 모집을 강행하였으며 이는 임시정부 안동교통국과 경쟁적 입장에 서게 되었다.²¹⁾ 상해임시정부에서는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에 연통제를 실시하고 그 대상으로 부자를 지목하였기 때문에 대한독립단과의 마찰이 생겼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형식상 표출된 것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북벽과 공화정의 차이였다.²²⁾ 하지만 이러한 갈등도 임정과와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점차 해소되기에 이르렀다.

대한독립단은 주로 일제 기관을 파괴하거나 군자금 모집활동에 전념하였다. 이들은 3, 4명 조를 짜서 결사대를 조직, 무기를 휴대하고 평안남북도 일대에서 일본 경찰을 습격하거나 친일 주구를 처단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독립단 설립 초기 全德元은 李明瑞, 許承澤, 玉京俊, 金龍甫, 尹學天 등과 함께 평북의 지단을 통해 군자금을 모금하였다.²³⁾ 1920년 3월 12일 대한독립단에서는 독립군의 행동을 일본 경찰에 알려준 평안북도 臺山 면장을 사살하였다.²⁴⁾ 또 대한독립단 소속 결사대원 3명은 1920년 3월 15

19) 金承學, 『韓國獨立史』 上 참조.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2(原書房, 1967), 923쪽.

20)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대한민국 공보처, 1900), 55쪽.

21) 대한독립단 설립 초기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갈등은 정체성에서 비롯되었다. 즉 공화정과 북벽주의가 지닌 색채는 통합할 수 없는 간극이었는데도 모른다(박환, 앞의 글 참조).

22) 박영석, 「일제하 滿洲·露領地域에서의 항일민족독립운동에 관한 연구」(『韓國史學』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178-179쪽.

23) 金承學, 『韓國獨立史』, 328쪽.

24) 채근식, 앞의 책, 56쪽.

일 평안북도 의주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던 한인 순사 金明沃을 사살하였다.²⁵⁾ 특히 친일단체인 保民會에 대한 공격은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다.²⁶⁾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대한독립단은 독립운동의 의지를 강고하게 확인하였으며 일제로서는 저항집단의 극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방책 마련에 힘썼다. 특히 중국관헌과의 협의를 통해 한인의 독립운동을 제어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다 확고한 세력이식을 위해 진력하였다.²⁷⁾

군자금은 대한독립단 수뇌부가 가장 고민했던 문제였다. 특히 만주지역 이주민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척도가 군자금 모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과 국내와의 연계성을 얼마만큼 고려하느냐가 뒤따른다. 모금방법도 문제였다. 즉 강제성과 자발성인데 상당부분 강제성이 담보되어 있었다.

1921년 10월 독립단 총무단장 金利河는 군자금으로 매호마다 은 70전을 징수하여 은 130을 환인현 제2구 구관 대리 馬峻山에게 기증하게 하였다. 1921년 11월 안도현에 근거를 둔 대한독립단은 모연부대를 설치하여 모연대 50명을 선발하여 함경남도 삼수군·갑산군 지방 및 평안북도 방면에 분파하여 군자금 모집을 위해 노력하였다.²⁸⁾ 대한독립단은 위싱턴회의 종료와 함께 조선에 내진한다는 목표하에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21년 10월 27일 독립단 총재와 상해임시정부 파견원 등은 寬甸縣 三道溝에 집합하여 회의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 임시정부와 대한독립단은 서로에 대한 견제를 중지하고 주로 일본 관헌을 습격, 암살하여 일반 동포의 기세를 높인다. 둘째 태평양회의의 결

25) 채근식, 위의 책, 56쪽.

26) 金承學, 『韓國獨立史』, 327쪽.

27) 金承學, 위의 책, 326쪽.

28) 『不逞團關係雜件-滿洲ノ部』 권 30, 『安圖縣地方ノ不逞鮮人團ノ情況ニ關スル件』(機密 제478호, 1921. 11. 19).

과는 독립을 승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만일 불행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전에 선언²⁹⁾ 발표한 것과 같이 우리 민족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혈전을 요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군자금의 제공 및 청년은 義單에 응모하는 결심을 요하는 뜻의 선전문을 인쇄하여 살포한다. 위 지원 청년 가운데 10명을 선발하여 폭탄실습을 한다.³⁰⁾

당시 이 회의에 참석한 대표적인 사람과 그 조직원은 다음과 같다. 李雄海(환인현지단장, 부하 45명), 맹철호(집안현 남구, 부하 30명), 조용준(환인현 이분구, 부하 80명), 박창렬(본계창, 부하 40명), 徐範善(환인현, 부하 20명), 조대능(관전현 小雅河, 부하 15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군자금 모집과 의열투쟁을 동시에 수행하였다.³¹⁾

1921년 대한독립단의 조직은 총재 朴華南이며, 단장에 이용해, 총무 김원섭, 재무 전덕원, 참모부장 김유성, 사법 황병문, 검찰장 박우열, 북로사령관 맹철호이며 인원은 700명 정도이다.³²⁾ 한편 1922년 2월 봉천경무서장이 관동청경무국에 보낸 보고서에는 대한독립단이 군자금 모집과 함께 일제 기관의 습격 및 요인암살에도 적극적이었음이 나타난다.³³⁾ 대한독립단장 이용해 부하 사법부장 황병문, 김효선은 권총 구입을 위해 서간도를 경유하여 길림으로 들어갔다. 또 鄭兼鎭, 金亨模, 鄭敬詢 등은 암살과 군자금 모집을 위해 각자 권총 1정, 폭탄 2개, 군자금 영수증 200매, 태평양회의에 관한 선전문을 휴대하여 1922년 1월 안동현을 통과하여 식민지 조선으로 향하였지만 관헌의 단속이 엄격하기 때문에 다시 관전현 이도구에 도착하였다. 1921년 4월 이용해 부하 韓鳳朝, 金相律, 金亨模 등은 의주 白承瑞 집에 이르러 군자금 영수증 50매를 건네어 군자금 모집을 의뢰하였으나 일

29) 金承學, 앞의 책, 326쪽.

30) 『不逞團』 권 30, 『不逞鮮人行動=關スル件』(機密公 제73호, 1921. 11. 18).

31) 위와 같음.

32) 『不逞團』 권 30, 『管内不逞鮮人一覽表進達ノ件』(機密公 제75호, 1921. 11. 25).

33) 『不逞團』 권 31, 『不逞鮮人動靜』(關機高收 제1694호-1, 1922. 2. 20).

본관현에게 체포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공통점은 군자금 영수증을 지참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군자금 모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1922년 2월 23일 대한독립단원 李根洙, 金麗善은 通化縣 李鎭根 집에 들어가 通化현 保民會³⁴⁾ 분회장 朴元信에게 보민회원 및 일반인들에게 의연금 5천원을 할당하였다.³⁵⁾ 하지만 당시 이주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모집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1,500원으로 감액하여 조달받았다. 이렇듯 당시 독립단의 군자금 모집은 이주민 사회에 적지 않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편 대한독립단에서는 군자금을 투자금 형식으로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1922년 3월 대한독립단원은 봉황성현 거주 이주 조선인 盧裕容 집에서 여러 명에게 군자금을 할당하였다. 예를 들면 盧右用에게 2백엔, 全京鶴에게 30엔, 崔承屹에게 1백엔, 朴魯學에게 20엔 등이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독립단 간부로 임명되었다.³⁶⁾ 이는 대한독립단이 본부 중심뿐만 아니라 지단 중심의 운영을 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즉 군자금 모금을 명목으로 하면서 이주 조선인에게 독립심과 민족정기를 고취시키는 선전활동도 아울러 전개하였던 것이다.

1922년 6월 관동청경무국의 보고에 의하면 흥경현, 환인현, 관전현, 통화현, 집안현에서 군자금 모집을 위해 이주 조선인에 대한 선전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였다.³⁷⁾ 특히 5월 이주 조선인에 대하여 추수기에 군자금을 모금하는 형식을 띠며 진행되었다. 유하현 哈蟆塘에 거주하는 朴承道는 독립자금 5원에서 50원까지 자발적 모집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즉 독립운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운용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

34) 保民會는 종교단체이면서 경제단체를 지향하였고 일제에게는 이주 한인을 이용하는데 매우 적합한 단체로 인식되었다.

35) 『不逞團』 권 32, 『不逞鮮人並馬賊行動ニ關スル件』(機密 제14호, 1922. 2. 28).

36) 『不逞團』 권 30, 『不逞鮮人ノ行動』(關機高秘 제3846호-1, 1922. 4. 10).

37) 『不逞團』 권 33, 『興京方面不逞鮮人ノ狀況』(關機高收 제8134호-1, 1922. 6. 20).

에 박승도를 비롯한 5, 6명은 자신들의 재산 일부를 군자금으로 내놓았다.³⁸⁾ 이들은 독립단의 본부에 가서 단원으로 가입하고 군자금 모집과 보민회에 대한 공격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보민회원의 대한독립단에 대한 적대감은 상당히 컸다.

1922년 8월 28일 통화분관주임 本田選(혼다)은 내무대신에게 통화현 일대에서 군자금 활동을 한 대한독립단원 체포사실을 보고하였다.³⁹⁾ 이러한 보고는 통화현 통북 保民會 지부 부회장 李溶錫의 밀고로 가능하였다. 通北외무감독 元禧祚(白承一) 등 30여 명은 이주 조선인에게 군자금으로 특등 500元⁴⁰⁾ 내지 800원, 일등 300원, 2등 200원, 3등 60원으로 구분하여 모금하였다. 특히 추수기 수확물을 미리 정하여 모금하거나 가축을 매각하여 조달하였고 보민회 통북사무소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이때 보민회원의 밀고로 많은 독립단원들이 체포되었다. 원희조(대한독립단 집단지단 외무감독), 裴基俊(裴基元, 집단지단통신 겸 검찰), 許丙(외교원) 등이다.

그러나 군자금 모금의 또 다른 문제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독립단의 군자금 모집이 일방적이며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1922년 4월 25일 통화분관주임 本田選은 외무대신 內田康哉(우치다)에게 대한독립단원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였다. 환인현 거주 吉隱國은 金得華, 車忠甲과 함께 중국 관현으로 변장하여 장총을 휴대하고 보민회 지회에 대해 공격을 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길은국이 사망하고 나머지 단원들도 일제 관현에게 피체되었다.⁴¹⁾

1922년 9월 유하현 출장소 주재 순사의 보고에 의하면, 흥경현 五鳳樓에 소재한 대한독립단 사무소에서 단원 약 25명이 무기를 휴대하고 유하현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친일파 조선인을 위협하여 한편으로는 일반 이주민에게 군자금을 강요하고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⁴²⁾ 이때

38) 『不逞團』 권 33, 『南山城子附近ニ於ケル不逞鮮人ノ狀況』(關機高收 제8114호-1).

39) 『不逞團』 권 33, 『不逞鮮人逮捕ニ關スル件』(機密公 제55호, 1922. 8. 28).

40) 元은 중국 은원으로 당시 봉천성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었던 것은 봉천표였으나 지나친 남발로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41) 『不逞團』 권 32, 『不逞鮮人行動ニ關スル件』(機密公 제24호, 1922. 4. 25).

독립단은 8, 9명이 한 조로 활동하였다. 유격모집의 형태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민회에 대한 강제적인 모금활동도 전개하였다. 1922년 12월 西豊縣 조선인민회 구장 洪承堯에게 군자금 명목으로 민회원에게 1천원을 요구하였다.⁴³⁾ 1922년 8월 27일 대한독립단원 申泰鳳, 許昌文, 文應伯 등은 모젤 권총을 휴대하여 통화현 黃正律 집에 침입하여 군자금 명목으로 2,500원을 자산 정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모금하였다.⁴⁴⁾ 이 외에 곡물과 가축도 군자금 명목으로 선매하였다.

1922년 8월 통화현 통남지단의 조직은 지단장 盧基柱를 비롯하여 재무 金泰眞, 都檢察 金炳學, 외교 田亨稷, 참의 金運聖이다.⁴⁵⁾ 이들은 본단 외 무출장원 崔東秀 주재로 군자금 모집과 그 활동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또한 구역경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통남지단장 노기주는 제6구총무 鄭柱化에게 국가의 광복과 동포를 원조하기 위해서는 태만한 사업태도를 지양하고 이주 조선인에 대한 주의를 각별히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주 조선인에 대한 엄격한 주의를 군자금 모집, 군사력 보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사안보다도 주의를 요하고 있다고 했다. 즉 단합, 비밀, 통신친목, 정탐은 단원이 이행해야 할 사항이었다.⁴⁶⁾ 왜냐하면 당시 대한독립단의 최대의 급무는 무기구입대금 조달에 있었기 때문이다.⁴⁷⁾

(2) 참의부

3·1운동 이후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여 항일독립전쟁을 효과적으로 전개

42) 『不逞團』 권 33, 「不逞鮮人ノ行動」(關機高收 제12529호-1, 1922. 9. 13).

43) 『不逞團』 권 35, 「不逞鮮人被害ニ關スル件報告」(機密公 제103호, 1922. 12. 19).

44) 『不逞團』 권 33, 「不逞鮮人行動ニ關スル件」(機密公 제59호, 1922. 9. 5).

45) 『不逞團』 권 33, 「不逞鮮人行動ニ關スル件」(機密公 제60호, 1922. 9. 5).

46) 『不逞團』 권 33, 위와 같음.

47) 『不逞團』 32, 「不逞鮮人ノ行動」(關機高收 제3846호-1, 1922. 4. 10)

하려는 민족적 염원에 따라 성립된 임시정부가 상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군사활동에 대한 능동적인 방침을 세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침략에도 대처할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자체가 독립운동의 영도적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다.⁴⁸⁾ 또한 임시정부는 외교독립론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기본노선으로 삼은 재만무장단체들을 지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요컨대 임시정부는 그들이 택한 외교노선으로 인해 만주의 무장독립단체를 영도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좌절시켰다.

남만주지역 독립군단체들은 이처럼 경신참변과 자유시참변 이래 일시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던 독립전쟁 전선의 재정비와 투쟁역량의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남만주에 소재한 독립단체들은 아직 국지적인 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⁴⁹⁾ 이러한 가운데 독립단체들은 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단체간의 통합으로 요약된다. 이는 당시 독립단체들이 이전처럼 각 단체의 분산적인 독립운동으로는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1920년대 중반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독립단은 3부로 요약된다. 그 가운데 참의부는 輯安, 寬甸, 臨江, 長白, 撫松縣을 아우르고 있었다. 1922년 8월 조직된 大韓統義府는 독립군이 염원하였던 표현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 통의부는 여러 단체를 통합하였다기보다는 미봉함으로써 언제든지 분열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벽주의자들이 통의부에서 이탈함으로써 통의부는 성립초기에 지녔던 상징성이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통의부 의용군 제1, 2, 3중대와 유격대 및 독립소대를 분리시켜 1924년초 대한민국 임시정부 陸軍 駐滿參議府가 조직되었다.⁵⁰⁾

48) 유준기, 「참의부」(『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202-203쪽.

4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4, 164쪽.

참의부는 설립 당시 중앙부서에 중앙의회와 민사부를 설치하였지만 군단으로서 그 중심을 무장투쟁에 두었다.⁵¹⁾ 무장투쟁을 선도하였던 白狂雲, 崔碩淳이 제1, 2대 참의장이 되었고, 1925년 3월 고마령 전투에서 희생된 후 참의부의 투쟁방략에도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즉 1925년 8월 21회 행정회의 이후에는 종전의 체제를 탈피하여 행정조직과 관서를 정비하기 시작함으로써 무장우선투쟁에서 자치우선주의로 그 노선이 전환되었다. 특히 1927년 3월에 제3대 참의장 尹世葦이 사임한 후 金承學이 제4대 참의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군정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참의부는 산업의 진흥과 문화계몽 그리고 민족교육 방면에서도 자치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⁵²⁾

창립 초기 참의부는 간부진 밑에 약 500명 이상의 병력으로 남만의 압록강변 중국지역을 관할하면서 지역내 한인들에게 자치행정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독립군단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참의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1925년경 집안현 화전자에 본부를 정하였다. 창립 당시의 참의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⁵³⁾

참의장 겸 제1중대장 蔡燦(백광운)

50) 金承學, 『韓國獨立史』(獨立同志會, 1965) 참조. 채영국, 「1920년대 중반 남만지역 독립군단의 정비와 활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1994). 참의부의 성립 원인은 다음 성명서를 통해서 보다 극명하게 나타났다. “1919년 3월 독립을 선언한 후 西路軍政署, 한족회, 靑年團聯合會, 義勇隊 등이 난립하여 각 간부간에 의견이 동일하지 않고 교민 호수 점령을 위하여 암투를 계속하였으나 1920년부터는 두 번에 걸쳐 통일되어 동의부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항상 내분을 일으켜 의군부의 병립을 보게 되어 제1차 동족전이 일어나 다대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이 동족전쟁을 불쌍하게 여기는 인사들은 동의부와와 관계를 끊고 제1, 2, 3, 5중대에서 대표를 임시정부에 파견하여 정부의 직할이 되고 명칭을 참의부라고 하는 군단을 설립하였다”(蔡根植, 앞의 책, 130-131쪽).

51) 유병호, 「1920년대 중기 남만주에서의 ‘自治’와 ‘共和政體」(『역사비평』 17, 1992), 252쪽.

52) 유준기, 앞의 글, 146-147쪽.

53) 김승학, 『한국독립사』, 350쪽 참조. 윤병석, 「참의, 정의, 신민부의 성립과정」(『백산학보』 7, 1969).

제2중대장 崔碩淳, 제3중대장 崔志豊
 제4중대장 金昌彬, 제5중대장 金蒼大
 독립소대장 許震起, 훈련대장 朴應伯
 중앙의회의장 白時觀, 민사부장 金篠厦

참의부의 조직은 보다 안정적으로 대민활동과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으며 급기야는 유혈충돌로 나타나기까지 하였다. 즉 참의장 겸 제1중대장이었던 백광운이 1924년 겨울 통의부 유격대 白炳俊과 白世雨 등에게 참살당하는 비극을 겪기도 하였다.⁵⁴⁾ 또한 일제의 습격을 받아 제2중대장 최석순이 사망하였다.⁵⁵⁾ 본래 참의부의 창립취지는 남만지역 각 독립단체간에 알력의 악습을 막고 민족적 역량을 항일운동에 총집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통의부와 의군부에 대해서도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통의부에서는 이를 주도권 쟁탈전으로 몰고가 결국 백광운이 참살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⁵⁶⁾

한편 참의부는 또 한번 중대한 조직전환의 위기를 맞게 된다. 참의부는 1925년 국내진공작전을 펼치기 위해 輯安縣 古馬嶺에서 군사회의를 개최하고 있던 중 이를 탐지한 초산 주둔 수비대에게 기습을 받고 장시간 교전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참의장 崔碩淳을 비롯한 간부와 대원 29명이 전사하였다.⁵⁷⁾ 참의부는 조직의 붕괴를 막고 보다 발전적인 전환을 꾀하였

54) 김승학, 앞의 책, 350쪽.

55) 채근식, 앞의 책, 134쪽.

56) 大韓統義府는 남만주의 각 독립군을 총망라한 강력한 항일민족운동단체로 등장하여 독립운동의 통합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이념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즉 공화적 민족주의 계열과 복벽주의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제5중대장 김명봉과 부대장 조태현은 통의부를 불신한다는 이유로 피살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전덕원을 비롯하여 채상덕, 김평식, 박대오 등은 환인현에 새로이 항일군단을 조직하여 통의부에서 분립을 선언, 의군부를 편성하였다(유준기, 『1920년대 제만독립운동단체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 1988, 142쪽). 이렇게 백광운의 죽음은 그 이전부터 그 원인을 배태하고 있었다.

57) 김승학, 앞의 책, 351-352쪽.

다. 1925년 8월 행정위원회를 열고 행정조직과 관서를 정비하기 시작하여 군사와 민정을 통할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⁵⁸⁾

특히 민정부문을 강조하였다. 이는 독립군 양성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나아가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원활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되었다. 이처럼 각 근거지는 모두 압록강변을 끼고 있었으며 신속한 통신망을 유지하면서 일제의 동태에 주시하였다.⁵⁹⁾ 중앙조직 및 군사조직을 구성하면서 아울러 민사조직 역시 관할구역을 정하고 지방행정망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참의부는 관할구역 내의 한인을 천호 단위로 하여 백가장을 두고 그 밑에 십가장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한인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는 행정구를 설정하여 50명 전후의 경호대원을 육성하고 지방치안 유지, 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였다. 특히 각 근거지가 한반도와 밀접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진입 유격대와 함께 무장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보험대라는 특수조직이었다. 이 보험대의 임무는 각 중대 및 소속부대간의 통신은 물론이고 참의부 독립군들이 유격대를 편성하여 진입할 경우 안내의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참의부의 대일항전은 주로 국내진격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었다.⁶⁰⁾ 특히 1923년부터 25년까지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였다. 1923년 8월

58) 군정부로의 모습을 탈바꿈한 참의부는 1928년 조직을 마지막으로 제정비한다. 본부를 환인현으로 하고 있는 참의부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참의장 김승학, 군사위원 마덕창, 외교위원 김소하, 조직위원 김강, 선전위원 박대호, 재무위원 김진, 민사위원 이광명, 교통위원 최천주, 법무위원 맹성목, 비서장 김선풍, 중앙의회 의장 양하산, 상의회원 계추강·김윤석·백시관·박종수·백학세, 제1중대장 김광명 인원 50, 제2중대장 김현 인원 50, 제3중대장 한세진 인원 30, 제4중대장 김상옥 인원 20, 제5중대장 박대호 인원 30, 중앙호위대장 처천리 인원 20(김승학, 『한국독립사』, 351쪽).

59) 채영국, 「1920년대 중반 남만지역독립군단의 정비와 활동」(『한국독립운동사』 8, 1994), 258쪽.

60) 유준기, 「참의부」(『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220-223쪽. 참의부가 국민부에 통합되는 1929년까지 약 7년 동안 500여 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국내진격에 주력하였다. 또한 일제의 군경과 밀정, 친일파 등을 살해하였으며 이주 한인에게

참의부가 성립된 직후 활동, 1924년 8월 齋藤實 총독 암살기도⁶¹⁾와 같은 일본 관리에 대한 암살시도는 참의부가 독립운동상에 처해 있는 위치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징표이다. 특히 이수홍의 군자금 모집과 그 활동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한 중대한 사건이었다.⁶²⁾

이수홍⁶³⁾은 독립단이 북만주에 근거지를 두고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1923년 3월부터 그곳을 목적지로 경성을 출발하여 남만주 봉황성까지 갔을 때 대한통의부원 李雲奉에게 일본의 밀정으로 오인되어 체포되고, 통의부 분대장 김용보에게 호송되었으나 통의부원 蔡相德⁶⁴⁾이 전에 이수홍의 부친인 李日瑩과 친밀한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수홍의 구명운동을 전개해 누명을 벗게 되었다. 그해 7월 하순경 대한통의부에 가맹하였으며 통의부가 경영하는 신명무관중학교⁶⁵⁾에 입학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1923년 8월 참의부가 성립된 직후 제3중대장 최지풍은 소속 대원들에게 국내진입을 명하였다. 이에 소대장 김용택은 소대원을 인솔하여 희천군 북면의 문장경찰관주재소를 점령하고 면사무소를 소각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공지와 용기를 심어주었다고 한다.

- 61) 조선총독 사이토가 한반도 북쪽 방면을 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참의부에서는 제2중대장 장창현 지휘하에 제1소대장 참의 한형웅과 오장, 이춘화 등 10여 명을 파견하였고 이들은 위원군 강변에서 대기하다가 사이토 일행이 승선한 배를 향하여 사격하였다. 이때 사이토 일행은 제빨리 피해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이 사건 자체는 조선총독부의 통치에 큰 타격을 주었다(김승학, 앞의 책, 151쪽). 왜냐하면 사이토는 대외적으로 조선통치의 안정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북한지방 순시를 한 것인데 독립군에게 저격당하였기 때문에 무단통치기와 차이를 두었다고 선전하였던 것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건으로 참의부 요원 2명이 피체되어 1명이 순국하기도 하였다.
- 62) 이하에서는 참의부의 군자금 모집활동 가운데 일제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참의부원 이수홍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63)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3-95쪽.
- 64) 채상덕은 북벽주의자였으며, 그는 이수홍의 만주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채상덕은 이미 독립군 내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있었으며, 1922년에는 대한독립군통일군단의 임시총장으로 추대되었다(『日本外交史料館文書-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滿洲ノ部』 권 33, 『間島接壤地不逞團統一ニ關スル件』, 機密受 제170호). 하지만 그는 고마령 전투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하였다(김승학, 앞의 책, 352쪽).
- 65) 신명학교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일제의 감시를 피하고 또한 중국 관헌과의 마찰을 줄

1년 6개월 동안 군대교육을 받았다. 졸업하자 대한통의부 민사부의 외무원으로 임명되었으나 2개월 정도 있다가 사임하고, 1924년 7월 초순경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참의부에 가입하고 그 곳의 제2중대 特務正士에 임명되어 환인현과 집안현의 경계에 있는 추자구에 주둔하고 그곳에서 내무를 관장하였다.⁶⁶⁾

이후 이수홍은 침체된 독립운동의 기운을 일신하고자 총독과 기타 대관을 암살하고 총독부 및 일제의 통치기관을 파괴하고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 朴東初에게 부탁하여 23원의 돈을 조달하고 1926년 음력 4월 15일경 만주를 출발하였다. 당시 참의부원들은 평안도 초산에서 군자금 모집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수홍은 이와는 별개로 단독으로 군자금 모집에 착수하였다. 그가 공술과정에서 밝혔듯이 국내에서는 치안유지법의 발효로 운신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다. 이수홍은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고 신명무관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채상덕에게 축하선물로 받은 권총⁶⁷⁾을 소지하고 국내로 잠입하였다. 국내로 잠입한 이수홍의 목적은 군자금 모집과 고관암살에 있었다. 특히 군자금 모집이 주목적이었다. 그는 桓仁縣을 출발하여 평북 雲山, 평양을 거쳐 황해도 平山에 도착하였다. 1926년 7월 6일 이수홍은 군자금 조달을 위해 평산군 안성면 撥站里의 부호 咸聖鎬의 집에 가서 군자금을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위협만 하고 경성으로 들어왔다.⁶⁸⁾

이기 위해서였다.

6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9, 193쪽.

67) 이수홍이 국내로 잠입할 때 휴대한 총기는 권총 2정(모젤식, 브로우닝식), 실탄 각 147발, 29발이었다.

68)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64쪽. 하지만 일제는 이 사건을 파렴치한 강도사건으로 몰고 가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재판기록을 보면 이수홍이 군자금 5백원을 요구하였으며 불응하면 사살한다고 하였는데 부호 함성호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일이 성립되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0, 1984, 866쪽). 이처럼 일제가 독립운동가의 도덕적 치명타를 가하여 민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이수홍이 경성에 들어온 시기인 1926년 7월 10일은 제2의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6·10만세운동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주지하듯 6·10만세운동은 제2차 조선공산당계의 거사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주동적 지도층이 완전히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의 독자적인 거사계획과 실천으로 인해 항일독립의 민족적 의지를 표현하는데 성공했으며, 그 도화선은 순종의 인산일이었다.⁶⁹⁾ 이러한 6·10만세운동의 분위기를 몸으로 느낀⁷⁰⁾ 이수홍은 총독부의 고관을 암살할 목적으로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柳南秀의 소재를 탐문하였으나, 그가 이미 조선총독부 급사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고 이천으로 향하였다. 이때 발생한 것이 東小門 사건이다. 이수홍이 7월 10일 밤 동소문과출소의 순경 德永勝次를 살해하였다는 것이 사건의 전모이다. 일제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⁷¹⁾ 이는 이수홍이 국내에 들어올 때 세웠던 고관 암살이라는 계획과 군자금 모집을 실행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즉흥적이며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며 정확한 목적의식 속에서 행해진 일이었다. 이는 그의 신문조서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천으로 가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동소문으로 향하는 중에 덕영순사가 파출소로부터 나의 뒤를 따라왔으므로 나는 복부에 숨겨 가지고 있는 권총을 살펴보았더니 그 총신의 2, 3촌 가량 옷 밖으로 나와 있기에 혹시 덕영순사가 이것을 보고 나를 따라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조금 가서 어두운 곳의 술집까지 가서 권총을 꺼내어서 오른손에 휴대하고 뒤를 보았다. 그 때 순사는 파출소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기에 나는 이것은 반드시 그 순사가 본서에 나의 사실을 알리려 하기 위해 전화를 걸 생각으로

6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8(1990), 237-243쪽 참조.

70) 宋相巖, 앞의 책, 382쪽.

71) 『東亞日報』 1926. 10. 22 「東小門犯人 入國說」. 일제는 동소문사건의 범인을 李光珍, 崔干岡으로 생각하고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여 그들이 러시아에서 新民府를 거쳐 다시 국내에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계태세에 들어갈 정도였다.

가는구나 생각하고, 소리쳐 독립단이라고 말하고 그 순사를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였다.……72)

이처럼 이수홍은 스스로를 독립단이라고 밝히고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경성을 빠져나와 자신의 고향인 이천으로 향하였다. 물론 목적은 군자금 모금이었다. 동소문 사건 이후 이수홍은 유남수에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대관을 암살하여 일본정부를 교란시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군자금 모집에만 동행하였다.⁷³⁾ 1926년 9월 9일 부로우닝 권총을 찬 이수홍은 모젤 권총을 柳澤秀에게 준 후 함께 安城郡 一竹面 東里 朴承六의 집에서 군자금을 요구하였다.⁷⁴⁾ 당시 박승륙의 집은 때마침 건축공사를 하고 있어 이수홍은 그의 장남인 朴泰乘에게 “나는 조선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응분의 군자금을 제공하라”고 하였으나 박태병은 불응하였다.⁷⁵⁾ 따라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에 이수홍은 인근 부호의 집에서 군자금을 모집할 계획을 세웠다. 그 대상이 李敏應이었다. 이수홍은 단독으로 驪州郡 興川面 外絲里 李敏應에게 군자금을 요구하였으나 돈 4원을 내어주자 받지 않았다.⁷⁶⁾ 이러한 상황에서 이수홍은 이민응에게 “자신은 거지가 아니며 당신은 1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소액을 내는 것은 나에게 대한 모욕이다”라고 하였다. 이때 이민응은 자신도 조선민족을 위하여 玄方식

72)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9, 165-166쪽.

73)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66쪽. 이수홍은 유택수와 동행하면서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번 안성에 가서 湖南銀行을 습격하여 군자금을 얻으면 먼저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단체에 가입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고 유택수도 동의하였다.

74) 宋相燾, 『騎驪隨筆』, 382쪽.

75) 이수홍은 자신의 신분을 숨김없이 드러냈으며 제공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었다. 이때에도 박태병에게 자신은 참의부원으로서 일본정부를 전복하는 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정확하게 그 동기를 밝혔다(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9, 168쪽).

76)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68-169쪽. 송상도, 『기려수필』, 382쪽에는 6원으로 되어 있다.

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다수의 빈민을 구제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므로 결코 조선민족을 생각하는 것은 타인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수홍을 감탄케 하였다. 하지만 뒤에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져 이수홍이 이천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민웅의 집에서 돌아온 이수홍은 현방식산주식회사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조선인 빈민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19일과 20일 회사 금고를 탈취하기 위하여 회사의 동정을 탐지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먼저 주재소를 습격한 후 금고를 탈취할 계획을 세웠다.⁷⁷⁾ 먼저 이수홍은 주재소의 순사 2명을 사살을 목적으로 권총을 발사하였다. 하지만 실패하여 바로 식산회사로 향하였다. 그러나 이미 직원들이 퇴근하였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수홍은 일본 정부기관이라 여겼던 면사무소에 가서 공금을 군자금으로 제공받으려 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다.⁷⁸⁾

이수홍은 군자금 모집과 사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민웅에게 군자금을 받으면 길림에서 혁명군大本영을 조직하고 조선총독부, 기타 관아의 건물을 파괴, 총독 등의 대관을 암살하는데 쓰이는 총기와 탄약을 비밀리에 조선으로 반입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⁷⁹⁾ 또한 총독을 비롯한 고위관료를 암살하고 당시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일제의 국제적 입지를 협소하게 만들려 하였다. 그는 스웨덴 황태자가 조선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암살하여 일본과 스웨덴 간의 국제문제를 발생시켜 전쟁기운을 조성하려 했다고 하였다.⁸⁰⁾ 이처럼 이수홍은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세까지도 독립운동에 이용할 정도로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판단력을 겸비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77)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69쪽.

78) 위의 책, 170쪽.

79) 위의 책, 190쪽.

80) 위의 책, 171쪽.

4. 군자금 모집의 성격과 특징

: 맺음말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1920년대초 남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단체의 군자금 모집 실태와 그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식민지 저항세력은 제국주의 군대와 의 대결에서 절대적인 약세를 면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군비나 군자금의 규모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1920년대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독립단을 비롯한 무장단체는 군자금 모집을 위해 일정한 마찰과 파열음까지 감수하면서 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단체의 활동을 요약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려 한다.

대한독립단이 전개한 군자금 모금활동은 의열투쟁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연부대를 조직하여 군자금 모집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적극적인 의열투쟁과 연결하고 있었다. 또한 참의부의 활동 가운데 이수홍이 전개한 독립운동의 특징을 보면 먼저 단독 의열투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수홍의 판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독립운동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다.⁸¹⁾ 이수홍은 이때 독립운동의 분위기를 일신시키고자 단독으로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신문조서에도 보이지만 그가 국내에 들어올 때 大韓駐滿 參議府員인 全泰京, 崔春京, 李永萬, 全振聲 등이 군자금 모집에 종사하고 있던 것을 평안북도 초산 산중에서 조우하였을 뿐 모든 활동은 단독으로 하였다.⁸²⁾ 이는 의열단원이 전개한 의열투쟁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의열단원은 하나의 대상을 목표로 거사를 실행하였지만⁸³⁾ 이수홍은 군자금 모집이라는

81) 『독립운동사자료집』 10, 865쪽.

82)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4쪽.

83)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던 의열단의 대표적 활동은 박재혁의 밀양경찰서 폭파,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파,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파 등을 들 수 있다.

목표하에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⁸⁴⁾

둘째, 대담성과 치밀함이다. 대한독립단은 군자금 모금을 위해 권총과 폭탄 등을 준비하는 대담함을 견지하였다.⁸⁵⁾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이면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였다. 참의부의 경우 특히 이천군 사건 당시에 거사 당일 전 이수홍이 변장을 하여 식산회사의 동정을 탐지하고 순사주재소를 습격한 사건은 즉흥적인 거사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거사였음을 보여준다. 그가 안성사건 이후 신문기자로 가장하여 이천경찰서를 찾아가 동태를 살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의 대담한 성품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수홍은 조선총독부 검사 中野俊助에 의한 제2차 신문에서도 침착하고 뚜렷하게 자신의 거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지켜 나갔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조선의 독립운동과 2천만 동포의 해방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셋째, 친일단체와 조직을 적절히 이용하였다. 1920년대초 흥경현에 본부를 둔 만주보민회를 이용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민회원과 독립단 사이에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독립단 입장에서는 친일파에 대한 응징과 군자금 모집이라는 이중효과를 거두기 위해 즐기치게 이러한 모금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또한 조선인민회의 조직을 이용하여 군자금을 모집하기도 하였다.⁸⁶⁾

넷째,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와도 연계하여 군자금 모금을 전개하였다.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 군자금 모집은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만주의 이주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활동은 일정 부분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부에서 각 고에 소집전권 위원을 파견하여 독립운동 의무금 즉 군자금을 징수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자산이

84) 『東亞日報』 1926년 10월 30일자 기사에서는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 정황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할 정도로 이수홍 의거는 당시 정국을 요동치게 하였다.

85) 주) 34 참조.

86) 『不逞團』 권 35, 『不逞鮮人被害=關スル件報告』(公 제103호. 1922. 12. 19).

많은 부호에게 경고문을 보내 자산의 30%를 헌납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대한독립단의 활동 가운데 평안북도 지역에서의 모금은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⁸⁷⁾ 한편으로 평안도, 황해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내 모금활동은 3·1운동 이후 침잠되었던 독립운동의 실체를 명확하게 각인시켜 주는 효과를 주면서 진행되었다.

요컨대 군자금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거의 모든 독립운동단체들에게 조직의 존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비정규군인 독립운동단체에서 군자금 모금문제는 용이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충당한 경우도 있었다. 192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는 이주민들에게 호소하는 막연한 방식보다는 체계적인 회비징수를 모델로 제시하여 전개하였으나 이 역시 그 본래의 목적을 충당하기에는 미흡하였다. 그 대안이 자산가를 비롯한 부호, 친일부호들에게서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반항일세력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한편으로는 독립군부대의 활동비를 충당하는 대안으로 많이 쓰였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때 군자금 모금실태의 전반적인 모습과 그 성격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4. 7. 2,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참의부(參議府), 이수흥(李壽興), 만주보민회, 군자금

87) 박환, 앞의 글, 200쪽.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s
of the Independence Army in Manchuria and
War-funds in the 1920's.

Kim, Joo-yong

The purpose of article is to analyze a case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feud within the organizations of the Independence Army and Japanese imperialism in the course of raising war contributions. The period is set to the 1920's. The ways of raising the sinews of war varied.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war funds was that there were a lot of main groups and subjects. Therefore, I inte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ar-contributions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rather than focus on the necessity of war fund-raising. The characteristics of raising war funds are as the follows.

First, the process of raising war-funds within the Daehan Doklipdan(大韓獨立團) was the same as that of Resistant(義烈鬪爭). For instance, the organization formed the raising groups, collected war-contributions, and deployed the Resistants. Also, the character of Lee Soo-heung(李壽興)'s struggle for independence was an individual fight.

Second, it was boldness and elaborateness. The Daehan Doklipdan(大韓獨立團) was bold enough to prepare pistols and bombs in order to raise the war-funds. And it took so much time to prepare those actions. In case of the Chamuibu(參議府), especially in the incident of Icheon-gun(利川郡), it was not an extemporary but an elaborate rebellion. The day before the

rebellion, Lee Soo-heung(李壽興) was disguised, watched the movement of the Company of Increasing Production(殖産會社), and attacked the police box.

Third, they made appropriate use of the Pro-Japanese organizations. In the early 1920's, they had raised war contributions from the Bominhoi of Manchuria(滿洲保民會) founded at Xingjinghyun(興京縣), China. Of course, even though there had been so many conflicts between the members of Bominhoi(保民會) and Doklipdan, the Doklipdan(獨立團) had continually collected war-funds to create a dual effect of punishment of the pro-Japanese groups and raising the contributions. The Residents' Community of Joseon(朝鮮人民會) was the same case.

Finally, they had developed collection of war-funds in the connection with Manchuria and their own country. Because raising war-contributions to figh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und-raising campaign to the emigrant of Joseon had in part limitations. So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had sent the fund-raising members and tried to collect war-contributions.

Key Words: Daehan Doklipdan, Chamuibu, Lee Soo-heung, Bominhoi of Manchuria, War-funds